일본 중소기업의 부품 해외조달 확대

일본 중소기업들은 최근 급격한 엔고에 따른 수익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부품의 해외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. 향후 해외조달처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및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의 여부가 핵심과제임.

□ **최근의 엔고가 중소기업에 대해 가격경쟁력 하락, 수익악화,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.**

- 엔화 가치는 8월 11일 1달러 84.72엔까지 상승한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8월 24일 83.60엔을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
- 일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, 중소기업 중 67%가 엔고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, 이 중 17%가 해외 부품조달을 증가시키는 대응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**일본 중소기업들은 엔고로 인한 수익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부품의 해외조달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품질관리 및 환율변동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.**

- (株) 피사(노즐 제조업체)는 해외 부품조달비율을 현재 5%에서 3년 이내에 30%까지 인상시킬 계획임. 또한 기술력이 높은 해외 제조업체를 발굴·육성해 나간다는 장기 전략을 수립함.

- (株)사카구치 전열(전열기 제조업체)은 부품의 해외조달비중을 현재 10%에서 1~2년 이내에 20% 정도로 인상한다고 밝힘.

- (株)후지야(작업공구 제조업체)는 현재 일본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재료를 연내에 10~20% 정도 베트남 제품으로 교체하여 원재료비를 감축하고 채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.

〈표〉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 해외조달 확대 사례

기업명	주요 내용
피사(FISA)	3년 이내에 5%에서 30%로 인상.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조달 확대
사카구치(坂口)전열	2년 이내에 10%에서 20%로 인상, 품질관리체제를 강화
후지야	핀치재료의 일부를 베트남제로 교체
태양 Parts	중국공장의 현지조달비율을 2년 이내에 70%에서 80%로 인상
엘므	현재 한국 등 해외로부터 30%의 부품을 조달 중이며, 향후 현지기술을 확인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
신조(新城)제작소	유로 약세를 배경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이 유럽으로부터 나사 부품 조달 확대를 검토
아사다	태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을 6개월 간 20%에서 5%로 압축

자료: 일본경제신문(2010.8.25).

□ **향후 일본 중소기업들이 해외 조달처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조건을 적용하면서 품질유지 및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수 있는지가 핵심과제로 대두됨.**

〈참고자료〉

일본경제신문(2010.5.25).『中小, 部品の海外調達擴大』.